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명의 성(性) 고찰

김 경 복*

A Study on the Sexuality of Korean Modern Poetry

Kyeong-Bo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
| 2. 성의 생명적 이데올로기와 반미학 | |
| 3.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명적 성 표현의 세 가지 양상 | |
| 3-1. 도구적 이성애의 저항으로서 생명적 성 | |
| 3-2. 상호소통적 관계맺기로서 생명적 성 | |
| 3-3. 신성 회복의 장으로서 생명적 성 | |
| 4. 결 론 | |

1. 서 론

산업사회가 깊어지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미세하게 얽혀 누구나 그 환부를 쉽게 들여다 보진 못한다. 어쩌면 모두 제 자리를 맴도는 몰살처럼 자기에게 허용된 영역만 맴돌다가 흔적없이 사라져가는 무상한 존재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단절과 고립,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와 결핍의 문제가 후기 산업사회의 진풍경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컨대 그것은 아마도 세계를 바로 보기 위해 먼저 자신을 아는 일이 아닐까 싶다. 즉, 사회의 분화가 극심해지고 인간의 삶이 자연과 유리된 상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성찰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란 뜻이다. 생명으로서 인간의 모습과 세계 내에 던져진 죽음의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에 대한 해명은 시대적 문맥을 달리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 해명의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들어와 많이 제기되었던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과 그 대답의 제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생명사상의 부각, 탈중심 및 정전의 파괴, 환경과 환상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성(性)과 성(聖)의 새로운 규명 등 분편화되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이러한 명제들은 이 시대적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물음과 그에 따른 대답은 어느 비평가가 끄찍한 모더니티라고 불렀던 지난 시기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 한국해양대학교 국어과 강사

집중된 만큼 이 시대사적 가치와 의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 양식이면서 생명의 참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性)의 문제는 더욱 시대적 해명의 요청을 받고 있다 하겠다. 성의 해방과 아울러 복제 생명이 논의되는 지금의 시기에 인간 존재성을 생성하고 인간적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욕망의 실체가 되는 성은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규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성에 대한 바른 인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전까지 가졌던 생명과 인간 존재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대적 삶의 실천 강령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어느 명제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은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미 앞에서 지적한 만큼 이 물음은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들이지만 그 대답은 쉽지 않으리란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 물음 자체가 전면적 답을 요구하는 데다 성에 대한 결정적 의미를 확정시켜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성에 대한 접근이 중층적이고 그 의미 또한 끝없이 유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필요에 따라 어느 측면을 강조해서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단면은 그 전체를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전체의 본질적 속성을 제시할 수는 있다. 우리는 이 지표와 상징의 결을 최대한 살려 오늘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필자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명의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생명의 성은 크게 종족의 보존과 존재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삶의 추동력으로서 억압적 현실에 저항하는 힘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생산적이고 소통적이며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신성한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섹슈얼리티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말 '성(性)'은 다양한 함의를 담고 있다. 유전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생물학적 구분으로서 섹스(sex),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학적으로 학습되어 구성된 구체적 행동과 그에 준하는 기대를 일컫는 사회적 구성체, 즉 남성성·여성성으로서의 젠더(gender), 더 나아가 프로이드가 인간 존재성을 해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 곧 신체구조와 심리구조, 사회규범과 특정사회 조직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복합적인 스펙트럼으로서의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이 이 성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다. 따라서 성을 이야기하자면 이 여러 국면을 다 종합하여 말해야 할 것이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이 모든 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섹슈얼리티 관점에 서면 현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성의 단면과 그에 따른 생명적 성의 문제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성의 생명적 이데올로기와 반미학

일반적으로 성은 형이상학적 관념의 형태보다 삶의 구체적 현실로 정초된다. 성은 인간 생명의 창조와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그 특징으로 자발성, 유희성, 충동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권위적 질서나 관념에 의해 구속되지 아니하며 언제나 본능과 개성, 더 나아가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때문에 성은 고정화되거나 완결된 세계를 거부하고 항상 변화와 창조의 세계를 지향하는 전복적 힘을 간직하고 있다.¹⁾

이러한 성의 의미는 프로이드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할 수 있다. 프로이드가 밝힌 문명의 발달은 이러한 성적 에너지를 억압한 결과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즉 프로이드가 말한 쾌락원칙에서 현실원칙으로의 이행이 인류 문명의 발달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본능적 속성을 억압한 것이 우리

1) 성 표현의 저항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해서는 김경복, 「한국 현대시의 성적 표현과 이데올로기」, 『한국 현대문학의 성과 매춘 연구』(태학사, 1996)를 참조할 것.

들 현재의 삶이라는 것이다.²⁾

그 말 속에는 언젠가는 억압된 요소들이 다시 불거져 나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 프로이트가 그렇게 밝히고자 했던 무의식의 세계, 곧 꿈 속에서 표출되는 모든 이미지들은 우리의 이성적·의식적 사고가 억눌러 두었던 욕망의 표출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억압된 성적 욕망이 삶과 문화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이에 대한 지나친 억압은 바로 문명 사회가 가져오는 자아 분열이나 신경증적 현상으로 나타나 오히려 인간 자신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이러한 억압이 덜하거나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 바람직한 역사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겠는데 프로이트는 오히려 이러한 성적 욕망을 더 잘 통제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삶과 문명의 정착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그는 성적 억압이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구조, 사회구조와 함수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마르쿠제는 성적 억압이 갖는 위험성과 아울러 성적 욕망의 해방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있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생각을 갖고 있다. 그가 『에로스와 문명』에서 “문화는 끊임없는 승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문화는 문화의 건설자인 에로스를 약화시킨다. 약화된 에로스에 의한 비성화(非性化)는 파괴적 충동을 풀어놓는다. 죽음의 본능이 삶의 본능에 대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본능의 해리(解離)에 문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제를 근원으로 하고, 진보되는 자제 아래서 발전하면서 문명은 자기 파괴로 기울어진다.”³⁾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억압된 성의 결과 문명이 자기 파괴로 치달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명을 유지, 보존시키고자 하는 도구적 이성이 얼마나 본능과 타자를 억압함으로써 세계를 황폐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산업화와 제국주의가 빚은 인간성 소외와 착취의 역사는 인류 문명 발달사에서 어두운 그늘로 자리할 것이다. 따라서 억압된 성의 해방은 도구적 이성에 대한 해방일뿐 아니라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구조, 사회구조에 대한 해방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쿠제가 성에 부여하는 생명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전복성을 강조하기는 조르쥬 바타이유에 의해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그는 에로티즘을 전체적으로 금기에 대한 위반의 형식이며, 인간적인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⁴⁾ 이는 성적인 에너지가 ‘금기’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일탈의 의미를 띠는 것이며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추동력이 됨을 가리킨다.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금기와 그것의 위반이 가지는 의미다. 여기서 금기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만든 체제 안정의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금기의 형성을 둘러싼 지배이데올로기는 소수의 지배자, 즉 부르주아 논리의 재생산에 기여한 담론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은 대다수의 인간 일반을 억누르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다. 때문에 평등과 해방을 지향하는 인간 욕망의 역사 발전 법칙으로 볼 때 피지배계층이 이에 반발하고 보다 구속됨 없는 상황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이 설정한 틀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바로 일탈과 위반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위반의 형식 중 가장 민중적이고 본질적인 행동이 성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실제 민중을 지배하고자 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성에 대한 담론을 억압한다.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이를 잘 묘사해주고 있듯 성을 둘러싼 억압의 동기는 권력과 관계 있다.⁵⁾ 역사적으

2) 지그문트 프로이트(김석희 역), 「<문명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 『문명 속의 불만』(열린책들, 1997), pp.9-35 참조

3) 마르쿠제(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나남, 1989), p.81

4) 조르쥬 바타이유(조한경 역), 『에로티즘』(민음사, 1989), p.102

5) 미셸 푸코(이규현 역), 『성의 역사』(나남, 1993) 참조.

로 성은 일사분란한 통제의 논리에 대해 원시적 충동과 일탈의 양식을 지님으로써 권력의 행사와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 서구의 경우를 두고 볼 때 성이란 현상에 대해 서구인들은 함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될 것, 공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논의될 수 없는 주제, 사적 영역에서만 비밀스럽게 간혀있어야 할 대상, 즉 분명 사회적 현상이지만 사회적이라는 공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억압과 일탈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⁶⁾ 이러한 현상은 동양에서도 곁양과 절제를 중시하는 예교주의를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다. 때문에 성은 대다수 인간 일반에게 금기의 대상이었다.

성에 대한 이러한 억압적 현상은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푸코가 지적하듯 후기 산업사회는 폭력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확산시킴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대중을 통제하는 사회다. 이 사회에서 부르주아는 '성적'욕망의 장치'를 통해 대중을 권장하며 통제한다. 즉 성적 욕망의 장치는 부르주아가 자기 계층의 육체를 확립하고, 또 이를 통해 자기들의 영역과 주도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를 프롤레타리아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르주아 권력에 지배되고 또 통제받게 된다는 것이다.⁷⁾ 푸코의 논리를 따르자면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과 욕망을 식민화시켜 진정한 자아의 정립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금기의 세계, 혹은 부르주아가 가설해 놓은 욕망의 덫을 빠져나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대상으로서 성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문학에서 이러한 성적 인식은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부르주아 담론이 지니고 있는 체제순응적, 고정적, 자동적 인식의 미학에 대해 생명의 논리에 입각한 자유적, 저항적, 창조적 미학을 성표현은 담고 있다. 이러한 성표현의 이데올로기성을 '반미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미학은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이 만든 본질주의 미학, 즉 부르주아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미학에 반발하여 다원적, 평등적, 민주적 인식을 불러오게 하는 미학을 가리킨다. 간략히 말해 본질주의 미학이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을 이어받아 어떤 중심이나 본질을 상정하고 모든 부분과 세부가 이 중심에 통일되는 미학임을 가리킨다 하면, 다시 말해 테오도르 리프스가 '군주제적 종속의 원리'라 부른 것으로서 다양성의 통일, 질서와 균형, 동시적 전체로 어떤 근본 형식이나 정서에 귀속되는 원리⁸⁾라 한다면, 반미학은 차이나 이질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현실적 소재를 그대로 작품 안에 들여와, 문학적 형상화에 따른 통일성이나 동일성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미학적 인식 위에서 문학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존 문학에 대한 관념을 변경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구체적 삶의 현실로부터 유리된 부르주아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환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임을 말한다.⁹⁾ 반미학의 대표적 예술로 말해지는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해 페터 뷔르거가 그 예술의 목표를 "삶의 실천 속으로 재통합"¹⁰⁾이라는 말로 풀이할 때 이를 잘 증명해 준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성적 표현은 반미학적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성적 표현은 우선 그 속성에서 지배자들의 금기에 위반하는 의미를 띠고 있는 데다 그 형식면에서 구체적 현실의 내용을 작품 속에 담는 의도가 강해 통일성에 대한 환상을 깨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적 표현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도화된 문학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띠며, 공식문화에 대한 대안문화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성적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자유와 해방의 의식을 실어나르는 통로로서 인간의

6) 전경수, 「성애의 문화론과 생물학」 《사회비평》 제13호(사회비평사, 1995), p.14

7) 미셸 푸코, 앞의 책, p.91-144

8) 미학연구회 편, 「미학」(문명사, 1979), p.76-104

9) 반미학적 입장의 문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김경복, 「반예술과 패러디」 『한국 현대시와 패러디』(현대미술사, 1996) 참조할 것.

10) 페터 뷔르거(이광일 역), 「아방가르드 예술이론」(동환출판사, 1986), p.61

삶과 생명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구성케 한다는 점에 있다. 그것이 생명의 성으로 인식되는 성적 표현의 긍정적 기능이다.

3.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생명적 성 표현의 세 가지 양상

3-1. 도구적 이성애의 저항으로서 생명적 성

이러한 저항의식으로서 성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엿보이는 시는 우리 시문학에서 보자면 사실시조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것이다. 사실시조가 갖는 민중성, 해학성, 현실성 등은 바로 성리학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피지배계층을 억누르던 관념적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시조에 대한 형식적 파괴 또한 공식문화에 대한 대안문화로서 민중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정신과 형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초기 사실시조의 중심을 이룬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 할 때 이것은 바로 유교적 예교주의가 갖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깨뜨리며 생명의 원천으로서 성이 갖는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과 다름 없다.¹¹⁾ 그것은 앞에서 보았던 반미학적 입장에서의 인간 해방의식이며 생명 예찬인 것이다.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 대한 해방의식으로서 생명적 성의 추구는 현대시에 들어오면 1930년대 서정주의 시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콩밭 속으로만 작구 다라나고
울타리는 막우 자빠트려 노코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던

사랑 사랑의 石榴꽃 낭기 낭기
하누바람 이랑 별이 모다 웃습네요
푹푹한 산노루땀 언덕마다 한마릿식
개고리는 개고리와 머구리는 머구리와

구비江물은 西天으로 흘러 내려……

땅에 긴 긴 입마춤은 오오 몸서리친
쑈니풀 지근지근 니빨이 히히여케
즙생스런 우슴은 달드라 달드라 우름가치
달드라.

-서정주, 「입마춤」전문¹²⁾

이 시에서 서정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 질서 속의 삶이다. “石榴꽃 낭기 낭기”나 “푹푹한 산노루땀 언덕마다 한마릿식”, 그리고 “개고리는 개고리와 머구리는 머구리와”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연적 생명의 창출로서 성의 결합이다. 그 자연적 성의 결합 연장 선상에 인간 또한 “긴 긴 입마춤”을 통해 달디단 “즙생스런 우슴”을 짓는다. 여기서의 성은 존재와 존재의 연속성을 이어주고 가장 자연스런 삶의 형태를 지지해주는 요소가 된다. 이 상황에서 성은 존재의 단절과 결핌을 채워주는

11) 신경숙, 「초기 사실시조의 성인식과 市井의 삶의 수용」 『한국문학논총 제16집』(한국문학회, 1995), p.204

12) 서정주, 『미당시전집1-花蛇集』(민음사, 1994), p.40

생명적 실체로서 어떠한 억압도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 생명파가 추구하였던 생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히 이 시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 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자연스런 성행위를 통한 생명의 고양된 감정을 넘어 이러한 생명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문명적 삶에 대한 비판의식이다. 국권상실기에 생명파라 일컬었던 유치환이나 서정주의 생명의식은 바로 일제가 우리 민족을 근대화시켜주겠다는 미명 하에 들어와 오히려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당대의 문명에 대한 적대감이라 할 수 있다. 그때의 문명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수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전략이었으며, 민족적 독립의식과 인간적 자유의식을 마비시키는 체제순응적 방편이었다. 따라서 보다 올바른 인간으로 서기 위한 의식적 투쟁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요구되었는데, 유치환은 원시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으로의 일탈로 여기에 대응했다면 서정주는 야성적 성의 세계로 침잠함으로써 여기에 대응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보이는 “올타리는 막우 자빠트려 놓”을 정도로 강렬한 성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몸서리칠” 정도로 “지근지근 니빨이 히허여케”하여 웃는 “증생스런 우슴”은 바로 일탈성과 강렬성 측면에서 규제와 억압의 현실에 대한 반항의 메시지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은 이미 앞에서 봤듯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위반의 형식이었고, 야성이 갖는 원시성 또한 미카엘 벨이 지적하였듯 문명이 갖는 억압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므로 이 시에서 지향하는 자연스런 생명으로서 성의 세계는 억압과 착취로 찌들린 국권상실기의 병든 우리 민족의 저항의식을 표현한 것이며 1930년대 우리 역사 현실을 반립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서정주의 이 시기의 시들, 즉 「花蛇」, 「대낮」, 「麥夏」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저항과 반미학적 인식으로 성의 생명인식은 6, 70년대에 들어와 강우식의 시에 전면화된다.

계집년들의 뱃때기라도 올라타듯
달이 뜬다. 젓물같이 젖어 오는
저 빛살들은 내 어머니의 사랑방 같은 데서
얼마나 묵었다 시방 오는가.
-강우식, 『四行詩抄 -넛』¹⁴⁾

미친년들의 엉덩짝만큼이나 흔들리는
꽃나무 가지마다 바람이 불어오면은
열댓살씩되는 처녀애들
속가랑이 벌리듯 꽃이 피네.
-강우식, 『四行詩抄 -열 들』¹⁵⁾

강우식이 이 시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 삶의 자연성과 건강성이다. 그가 그의 전 시 작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통해 이것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성이 가지는 이와 같은 생명적 자유의식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성은 인간끼리 접촉하여 일으키는 가장 뜨거운 불꽃, 아니 폭탄이나 다름없다. 이 폭탄이 터질 때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의 태어난 기쁨과 인간의 위대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됨의 자격이 없다. 이 작열하는 폭탄으로써 우리 정신의 질병을 극복하고 또 생명의 신비한 탄생과 인간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¹⁶⁾는 시인의 말은 바로 성이 가지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식과 이에 따른 생명의식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그

13)미카엘 벨(김성곤 역), 『원시주의』(서울대 출판부, 1985), p.53, 103-104

14)강우식, 『四行詩抄』(현암사, 1974), p.7

15)같은 책, p.11

16)강우식, 『물의 魂』(예전사, 1986), p.114

러므로 그의 시를 두고 외설스럽다 하는 평은 그의 시가 갖는 본뜻을 바로 보지 못한 처사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도구적 이성이 팽배해지고 은연중 인간마저 교환가치에 함몰되어 물화되어 갈 때 생명의 원초성을 깨우고 삶의 추동력을 불어넣는 강우식의 시는 무엇보다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실제 위 시에 보듯이 “계집년들의 뱃때기라도 올라타듯/뜨는” 달이나 “열댓살씩되는 처녀애들/속가랑이 벌리듯” 피는 꽃은 모두 건강한 생명의 힘에 넘쳐 있다. 그것은 세계를 보는 서정적 자아의 시선이 생명적 충동에 충일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덕과 이성의 명령에 억제되지 아니하는 본원적 삶의 힘이다. 이 시가 그러면서 외설, 즉 포르노그라피가 되지 않는 까닭은 사물들끼리의 관계가 자발적이고 즐거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에 입각한 세계와의 대화다. 알다시피 포르노그라피는 생명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대상을 도구화하여 한 개인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성적인 현상은 독백적 환상을 채워주는 기만적 형태로 제시되고 그 결과 실재가 아닌 성의 모습으로 오히려 주체는 강박관념에 휩싸인다. 그것은 또다른 성 억압이다. 이 시는 그러한 독백적이고 기만적 환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이 시는 앞에서 말했듯 산업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반자연, 반생명, 즉 소외되고 사물화되어 가는 현대인의 전망에 원시적 충동과 자연적 삶의 세계, 다시 말해 어떠한 관념이나 권위에 물들지 않은 본능의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강우식의 제3시집 『꽃을 꺾기 시작하면서』의 해설을 쓴 평론가 백승철의 말 ‘반교양주의’¹⁷⁾, 즉 강우식의 성적 특성을 두고 현대문명의 잘못된 교양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반교양주의 말이 사실은 성적 표현이 갖는 반미학적 성격을 확인해준 데에서도 증명된다 하겠다.

이러한 성의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서 기능은 앞에서 이야기했듯 포스트모더니즘에 들어와 보다 더 극명해질 것은 자명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탈중심과 비규정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만큼 성 표현이 갖는 이데올로기와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어느 여자 신인이 등단 잡지에 이러한 시적 전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름 학기
여성학 종강한 뒤,

화장실 바닥에
거울 놓고
양 다리 활짝 열었다.

선분홍
꽃잎 한 점 보였다.

이럴 수가!
오, 모르게 꽃이었다니

아랫배 깊숙이
구근 한덩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하얀 크리넥스

17) 강우식, 『꽃을 꺾기 시작하면서』(문학예술사, 1974), pp.10-17

입입으로 피워낸 꽃잎처럼

철따라
점점(點點)이 피꽃 게우며,

울컥 불컥
목젖 행구며,

나
물오른
한줄기 꽃대였다네.

-진수미, 「바기날 플라워」 전문¹⁸⁾

이 시에서 놀라울 것이 있다면 성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감추고 꺼릴 것 없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에 오면 앞의 서정주나 강우식이 보여주었던 비유적 차원의 성적 인식이 바로 삶의 지시적 차원으로 내려와 기능함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이제 성은 사적 영역의 억압적 대상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인간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이 되었음을 뜻한다. 실제 이 시도 무엇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밀쳐두었던 성적 언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에 이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개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점에서 이 시는 성에 대한 인식이 이전 세대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성에 대한 억압적 담론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만은 신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에 비해 자신의 존재성을 찾고자 하는 의식의 치열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저항적 성표현은 이제 자기 존재성을 해명하는 인식적 매개가 됨으로써 그 생명적 기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2. 상호소통적 관계맺기로서 생명적 성

성적 표현이 보여주는 생명적 특성은 이러한 전복적이고 저항적 의미 말고도 존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은 두 사람의 인격적 존재가 각자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각자의 부정적 요소를 지양하는 만남의 계기를 마련한다. 즉 바타이유가 『에로티즘』에서 성교의 전단계로서 발가벗기는 자신에의 웅크림 너머로, 존재의 연속성을 제시하는 교통의 상태¹⁹⁾하여 성행위의 참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성은 자기 자신보다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주고 자신이 가진 특성들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관능적인 것이란 다른 이들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성취하려는 성적 에너지의 방출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해방의 가능성을 뜻한다. 따라서 성은 소외와 단절로부터 소통과 구원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수익이 바라보는 성행위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두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고도 표현하지 못한 부분은
얼굴이
대신해 주고 있었다.

열마디 손가락 사이에서

18) 《문학동네》 97년 여름호

19) 바타이유, 앞의 책, p.17

불타는 언어,
그울음은 남기지 않은 感情의 完全燃燒,
그 아름답고 황홀한 交感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병어리가
서로
말하고 있을 동안에

-이수익, 「交感」 전문

이 시는 존재와 존재의 완전한 합일을 노래하고 있다. 일상적 존재성의 찌꺼기라 할 수 있는 “그울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完全燃燒”함으로써 “황홀한 交感”의 만남을 획득하는 것은 두 존재의 변증법적 통합이나 다름없다. 거기서는 새로운 존재의 열림이 있을 뿐이다. 에른스트 블로흐가 말하고 있는 바로 ‘동일성의 고향’²⁰⁾이라 할 수 있는, 즉 소외 없는 삶의 순간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 만남으로 보자면 가장 유토피아적 상태를 구현하고 있다.

실제 인간은 탄생과 더불어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 되돌아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적 존재의 올바른 흐름은 자궁 속으로의 퇴행이 아니라 그것의 승화에 달려 있다. 여기서 자궁으로의 회귀와 현실원리가 지배하는 세계 속으로 나아감 속에서 인간은 갈등하며 고뇌를 운명적으로 짐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어머니 자궁의 대속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존재와의 결합은 이러한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사회공동체에 일원이 되게 하는 힘을 준다.²¹⁾ 따라서 남성과 여성적 존재로서 건강한 성적 결합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고뇌, 즉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사회적 구성체의 관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백미혜의 「꽃 피는 시간」은 이러한 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략>…

4

발화 지점을 어렵פות이
알고는 있지만
분명, 그곳을 확인해야 우리는
발을 딛고 지상으로
차오를 수 있을 거야.
이 끝 모를 늪에서 밤새처럼
꿈마다 어지러이 날아다닐 바에야
당신이 당신을 지우고
내 몸이 내 몸을
제발, 당신과 내가 모두 지워져요.

5

어둠 속에서
마음의 명령만을 따라
몸이 움직인다.

어떤 사물이든

20)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민음사, 1994), p.29에서 재인용

21) 마르크 오래종(정홍규 역), 『성Sexuality』(이문출판사, 1985), p.33

나의 성실한 소묘가 계속된다면
너의 본질 꿰뚫을 수 있을까?

옷 벗고
비눗물 씻어내고 침대
가까이로 다가서서 부드럽게
이윽고 조금씩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이 색채,
내 눈과 마음을 찾아와서
네가 끝까지 듣고 싶어하는 말

몸 깊은 곳에서
그 푸른 빛과 만나고, 이 밤
나는 문득 가벼워진다.

-백미혜, 「꽃 피는 시간」²²⁾

연작시의 형태로 사랑의 충일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두 존재의 만남이 얼마나 깊이 합일함으로써 존재의 변환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4장에서 “당신이 당신을 지우고/내 몸이 내 몸을/제발, 당신과 내가 모두 지워져요.”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 주체성에서 벗어나 타자의 수용의 자세를 함께 갖자고 기원함으로써 존재의 소통적 관계를 열어 놓는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타자의 논리를 최대한으로 그 내부의 시점에서 이해하고자”²³⁾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생명의 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서 성적 결합은 5장에서 보듯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색채”와 끝없이 갈구하는 “말”이 되고 그 결과 존재 전환의 표지인 “푸른 빛과 만나”면서 그는 “가벼워진다”. 백미혜가 지향하는 것 역시 바로 소외와 단절이 극복된 동일성의 고향인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 시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마음의 명령만을 따라/몸이 움직인다.”는 선언이다. 생명적 성이 갖는 존재의 연속성은 두 인격적 만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정신과 육체로 이분화돼 인식되던 경계의 해체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인간성의 파악에서 전통적 미학은 정신을 우위에 두었다. 그래서 몸의 가치를 억압하거나 등한시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난 정신은 없으며 몸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이 길러진다고 볼 때 몸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저항의 철학자인 니체가 육체성을 강조한 이후로 관념적 진리에 저항하기 위한 테제로 육체성이 자주 등장하였지만 이를 본능적 차원에서 감지케 하는 성의 인식은 이 시대적 의미의 지평도를 갖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시대적 인간 존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셈이다. 위 시도 그 표현상 ‘마음의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인다 표현하고 있지만 전체 문맥을 두고 볼 때 ‘몸의 명령’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마음과 몸이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된 상태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미혜의 이 시는 정신과 육체의 합일로서도 건강한 생명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음과 몸의 소통 의미로서 몸의 가치를 더 살펴보자면 이를 일관되게 추구한 정진규의 시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진규 시인이 『몸詩』라는 연작시집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몸의

22) 『에로스의 반지』(민음사, 1995), pp.18-20

23) 권성우, 「문화의 희망, 희망의 문화」, 《오늘의 문예비평》(1995년 봄호), p.139

길, 몸의 가치는 바로 우리 시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일자가 경시해버린 '타자성의 부활'이다.

그대 기슭에
비로소 찰싹이는
물살,
물의 혀,
물의 입술,

비로소 나는
그대 위한 몸이 되고 있네
비로소 몸이 듣네
몸이 말을 듣네

이 겨울에도
얼지를 앓네

-정진규, 「몸詩 · 29 -戀書」 전문²⁴⁾

이 시는 바로 몸의 구체성, 현실성, 생동성 등을 노래하고 있다. 그가 “비로소”라는 부사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 쓰면서 발견하는 혀, 입술, 몸의 기능은 어떠한 관념이나 환상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나’라는 실체 그 자체, 그리하여 “겨울에도/얼지를 앓”는确연한 깨달음의 실체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타성적으로 배제시켜버린 진실, 주체에 대한 기만적 환상, 혹은 우리 정신의 도구성 등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전언인데, 무엇보다 소외되었던 타자로서 육체성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전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이 갖는 전복적 성격을 드러낸다. 게다가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들어와 주변 가치의 복권화라든지 타자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등 타자성의 부활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망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생명의 성은 타자를 내부시점에서 이해하는 타자성의 승인의 한 형식이며 상호소통적 관계맺기의 의미로서 동일자의 확장에 해당한다 하겠다.²⁵⁾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이러한 깨달음의 계시로서 몸의 발견이 성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가 궁극적으로 그의 연작시 「몸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 안에는 자기표현, 자기발전, 자기완성을 향해 움직이는 내적 역동성이 잠재해 있다는 생명적 사실인데 이것은 곧 성이 갖는 존재의 연속성이나 계시성을 그가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생명적 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서나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거짓이 없어야 한다. 어떤 성적 결합이든 참된 즐거움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적 성은 진짜 오르가즘을 대동해야 하는 것이다. 국부의 기계적인 단순 배출이거나 생식기관의 팽창과 수축에 그치는 가짜 오르가즘이 아니라 기관 에너지와의 공명 속에서 모든 신체를 이용함으로써 죽음 같은 정지의 상태에 이르는 오르가즘 말이다. 이러한 오르가즘에 올랐을 때 진정한 자아와 자아의 계시가 열릴 것이다. 이 점에서 60년대 김수영이 「性」이라는 시를 통해 속임의 결합을 하면 결국 자신마저 속이게 된다는 자기 소외의 반성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참된 인간적 소통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²⁶⁾ 이처럼 우리 일상적 삶에서 참된 오르가즘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철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 위 이수익과 백미혜 시가 보

24) 「몸詩」(세계사, 1994), p.56

25) E.T. 배넷(이경호 역), 「푸코의 반인간주의」《현대시사상》제2권 제2호(1990), p.111

26) 고현철, 「현대시의 성 표현과 주제의식」『한국현대문학의 성과 매춘연구』, pp.195-196

여주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저한 사랑의 끝에 만나는 존재의 완전 연소가 아닐까?
채호기의 시에 오면 이러한 완전한 연소로서 성적 결합의 모습은 완연해진다.

기차의 육중한 몸체가 순식간에 그대 몸을 덮쳐 누르듯
레일처럼 길게 드리눅는 내 몸

바퀴와 레일이 부딪쳐 피워내는 불꽃같이
내 몸과 그대의 몸이
부딪치며 일으키는 짧은 불꽃

그대 몸의 감감한 동굴에 꽃히는 기차처럼
시퍼런 칼끝이 죽음을 관통하는
이 지독한 사랑

내 자궁 속에 그대 주검을 묻듯
그대 자궁 속에 내 주검을 묻네

-채호기, 「지독한 사랑」 전문²⁷⁾

바딤이유가 에로티즘을 두고 '죽음까지 파고 드는 삶'²⁸⁾이라 말한 그대로를 우리는 채호기의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존재의 고통은 일상적 삶 자체를 초월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채호기가 보여 주는 죽음과 같은 사랑의 절대 합일, 육체적 오르가즘을 넘어 정신적 초탈의 세계로의 진입, 그것은 순간적이면서 영원한 존재로서는 것이며 죽음마저 꿰뚫고 지나가는 '지독한' 추동력을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고통의 비위버림이며 동시에 세상의 진실을 일시에 파악할 수 있는 섬광같은 '통찰'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것의 절대성 앞에, 그러한 사랑의 도저함 앞에 일편의 거짓이나 기만은 용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일상적 삶의 비속함에 몰들어 진정한 존재의 계시를 맛보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성이든 죽음이든 비본래적 자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난한 사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3. 신성 회복의 장으로서 생명적 성

그러므로 무엇보다 생명적 성의 본질적 의미는 신성의 회복에 있을 것이다. 실제 성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창조와 종족의 보존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할 뿐 아니라 성스러움이 갖는 희생의 의미가 성행위 속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성은 두 사람의 결합으로 하나의 새로운 개체가 태어난다 할 때 두 사람의 성행위는 바로 생명력의 이전이란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명의 나눠줌, 이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의 생명적 현상의 궁극은 바로 이러한 희생제의적 성격에 있다.

한편 신성은 일반적으로 금기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로제 카이유와가 『인간과 聖』에서 잘 분석해 놓았듯이 성스러움은 금기의 이론이면서 축제의 이론, 즉 위반의 이론이다. 신성이 갖는 위반의 내용은 노쇠를 지워 없애기 위한 일상적인 것의 전복, 곧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가리킨다.²⁹⁾ 따라서 신성이 갖는 이러한 쇄신으로서 전복적 의미의 역할은 이미 앞에서 보았듯 성적 의미와 닮은 바가 많은 것이다.

27) 「지독한 사랑」(문학과 지성사, 1992), p.61

28) 바딤이유, 앞의 책, pp.113-116

29) 로제 카이유와(권은미 역), 『인간과 聖』(문학동네, 1996), pp.86-191 참조

이러한 신성한 성은 자연의 본질과 닮아 있으므로 우주적인 범성육주의³⁰⁾와 상통한다. 우주는 생명을 둘러싼 거대한 성적 결합의 장인 것이다. 때문에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 또한 성의 이러한 신성함을 되찾는 한 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블로흐의 동일성의 고향이 사실 '인간의 자연화, 자연의 인간화'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때, 90년대에 들어와 생명시학³¹⁾에서 논의되는 시들이 자연과 생명의 건강한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는 않다. 이성선의 시는 여기에 잘 부합된다.

우주의 숨쉬는 자궁

그 속에 당신의 정액이
별들로 회부영계 뿌려져 있다

바가지 하나 가득
우물물을 뜬다.

사리빛 당신의 몸을 마신다.

-이성선, 「우물」 전문³²⁾

이 시는 바로 우주의 범성육주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주의 생성 자체를 생명적 성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은 성이 성스럽다는 것을 말함이다. 그리고 시적 화자 또한 이러한 성스러운 자연과 합일하려는 의도로 “사리빛 당신의 몸을 마신다” 하는 것은 생명의 교감을 통한 천상적 존재로 승화되고픈 욕망을 드러낸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물’을 마심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즉 물활론적 세계 속의 결합의 방식과 자연의 구상물들이 인간의 육체성, 즉 자궁이나 정액과 닮았다는 인식은 동양적 인생관에서 말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시적 형상화와 다름없다. 그것은 생명의 성, 신성의 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스러운 생명적 결합은 고재종의 자연 친화력을 강조하는 생명시에서도 나타난다.

발작물 모두 거두고
늦보리 같았던 동석이 아저씨
오후엔 텃밭에 마늘을 심다가
해설피 마음마저 고단할 즈음
허리 빼긋한 아내
그만 땅바닥에 자지러지는 걸 보곤
일 년 열달 소모양 부려먹고
약재 한 칩 못 달여준 자피 깊어
그 즉시 닭장으로 달려가
씨암닭 한 마리 모가지 비틀고
묵은 마늘 한 사발 까 넣고
손수 장작을 패서 닭죽을 고아선
큰놈 작은놈 모두 잠든 오밤중
아내 깨워 한 양푼 닭죽 먹이곤
자기도 닭다리랑 흠뻑 뜯고는
어찌 그다지도 곱게 눈 흘기는 아내
그 훑내나는 가슴팍에 꼬옥 껴안고 알
사내놈만 들이니 안되겠더라

30) 피에르 고디베르(장진영 역), 「문화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술, 1993), p.173

31) 90년대부터 논의된 생명시학에 관한 글들은 신덕룡 편, 「초록 생명의 길」(시와 사람사, 1997)을 참조할 것.

32) 「새벽꽃 향기」(문학사상사, 1989), p.22

당신 같은 딸 하나만 더 뽑으라며
 그만 아내의 속고쟁이 와락 벗기니
 그 아내 도대체 마다하지도 않고
 그 아내 도대체 마다하지도 않고
 은몸 속속히 열어 그의 씨앗 받으니
 오호 뒷방에 앉혀둔 흥시도 고이 익는
 추야장장 긴긴 밤 눈물도 깊은 밤
 -고재종, 「추야장장」 전문³³⁾

신화적 상상력에서는 여인과 대지 사이에, 즉 농업과 성적인 행위 사이에는 동일성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명시된 규범에 따른다면 여자의 성기는 밭고랑과 유사한 것이며 남자의 성기는 밭가는 기구, 즉 쟁기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³⁴⁾ 그래서 여인은 밭으로 생각될 수 있고 남자는 씨앗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위 고재종의 시는 그런 신화적 상상력을 잘 표현하고 있다. 농사 짓다 생긴 아픔은 생명의 농사 짓는 일로 치유된다. “씨앗을 받는” 것은 모든 세계와 더불어 “익어” 가는 것, 그것은 우주의 자연스런 섭리에 부응하는 삶의 태도이기에 혼란과 모순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신성한 힘은 시간이 만든 단속성을 이겨낼 힘을 준다.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의 깊음과 그 신성함은 존재의 결합의 강도, 즉 “추야장장 긴긴 밤”으로 표현되면서 근대성이 갖는 직선적 시간의 공포감을 극복한다.

4. 결 론

이상으로 볼 때 성의 인식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횡포와 근대성이 저질러놓은 비인간화에 대한 부정과 극복의 자리에 놓인다. 인간은 도구화될 수 없고 생명적 충동에 진실해야 할 존재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다. 타자와 교섭하고 언제나 보다 높은 차원에서 승화된 만남을 인간은 갈구한다. 그럴 때 성은 이러한 인간의 절실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기제로 작동한다. 또한 인간의 속화되고 사물화된 인식 위로 성스러움의 필요성과 그것의 가치를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신성이란 피에르 고디베르가 밝히고 있듯이 전체에 대한 모든 경험, 즉 영혼/육체, 정신/물질, 형이상학/형이하학 사이의 절대적인 구분에 대한 거부를 뜻한다.³⁵⁾ 그것은 분열되고 파편화됨으로써 소외와 단절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현대인에게 구원의 전망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 성은 이에 대해 육체와 정신에 동시에 작용하는 인식과 계시의 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들 삶을 깊게 하는 내면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성의 회복으로 기능한다. 아니 성스러움의 나타남 그 자체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성이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의 방향으로만 전개되지는 않는 것 같다. 앞에서 미셸 푸코의 이야기를 인용했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성은 타인을 수단화하고 지배하는 권력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의 성은 생명의 성이 아니라 욕망의 성이다. 그것은 국부적 자기 마취와 허무주의에 중독되는 허위의 표출일 뿐이다. 자기 삶의 방기와 같은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한다. 따라서 성은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고 생명의 탄생과 그것의 연속을 매개함으로써 성스러움과 기쁨을 주는 본원적 충동이어야 한다. 그럴 때 구원은 성경의 비유처럼 도적같이 우리들 주변에 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무화(無化)의 심연으로 굴러떨어져 간다는 세기말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 인간의 본질, 생명의 참뜻을 깨우쳐주는 성의 성스러운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바람부는 숲속에 사랑은 머물고」(1987)

34)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공저(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청하, 1989), p.316

35) 피에르 고디베르, 앞의 책, p.174

A Study of the Sexuality of Korean Modern Poetry

Kyeongbog, Kim

The sexual expression and cognition in literature are placed on the negation and conquest for oppression of the ruling ideology and anti-humanism of modernity. On that point, the sexual expression maintains anti-aesthetics which resists against literary convention.

This sexual expression and cognition on the Korean modern poetry play the three roles for enhancing human's lifehood. The first, resisting significance for the instrumental reason, the second, relationship of mutual understanding, and finally, the ground of sacredness-recovery.
